

## [1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2186155>

---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4, 2014-04-0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 14号の発刊にあたって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長 松原 孝俊

1998年11月の金鍾泌韓国国務総理（当時）の来学が契機となり、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は1999年12月に創設、2000年1月に開所式を行いました。その後、幸いにも韓国国際交流財団などからのサポートを受けつつ、2010年12月に国内外からの著名な方々をお迎えして、10周年記念セレモニーを行いました。創設後の10年間の目標は「日韓地域連携の形成—特に福岡・釜山間を中心に—」であり、朝鮮半島の学際的且つ総合的研究、優れた次世代韓国研究者の輩出、福岡釜山フォーラムの運営等により、両地域間の多彩な分野における連携が実現し、当初の目標は達せられたと自負しています。そして、次の10年間の目標を「東アジア共同体研究」と定め、私ども韓国研究センターのスタッフは「海峡あれど、国境なし」をモットーに、一丸となって邁進しております。

さて、教育面において、2011年度に開設した「日韓海峡圏カレッジ」は、「キャンパス共有」を合い言葉にして、夏には九州大学と釜山大学校の学生が互いのキャンパスを往来し、冬には延世大学校を訪問した九州大学生が韓国で「現地力」の養成に努め、「世界に羽ばたく」グローバル人材育成に取り組みました。2014年で最終年度を迎えましたが、この3年間に日韓を往来した学生は250名に達しました。こうした顕著な成果に支えられて、2014年度から5年間にわたる文部科学省特別経費による運用が許されて、国際共同教育プログラムは、地域を日韓海峡圏からアジア太平洋へと、人数も250名から800名へと、参加大学も2大学から6大学へと拡大し、時代の流れに即応したグローバル人材育成を九州大学から世界に送り出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研究面では、2012年から2年間にわたり、韓国国際交流財団助成事業である「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構築」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ました。従来の一国史的、地域史的な枠組みを脱して、人類の歴史をグローバルに捉える視点から朝鮮半島の歴史・文化を総体的に考察することで、新たな韓国史像の構築を目指しました。いわば国民国家論に代わる広域地域間の「関係の束」や世界システム・国際秩序などの新たな分析の枠組みを導入することです。初年度に引き続き、今年度も日韓双方から多くの若手研究者が集い、複数回にわたるワークショップを実施しました。その研究成果の一部は韓国研究センター県民講座2013（共催：福岡県国際交流センター）などの機会を通して社会へ発進することで、世代や国籍を越えた多くの人が共有できたはずで、このほか、2013年度も各種のワークショップや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ので、名実共に日本における「韓国研究の世界的拠点形成」に貢献できたと自負しています。

当センターは、皆様からのご声援を支えに、今後もさらなる韓国研究の発展のために努力して参りますが、それと同時に九州大学「躍進百大」計画の一翼を担う学内共同研究教育施設として、今後とも応分の貢献を続け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なお、世界の著名な13大学所属韓国研究センターを網羅した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第2代会長として、私は、今後共に応分の貢献を果たしたいと願っています。

1998년 11월, 김종필, 당시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교 방문이 계기가 되어, 1999년 12월 규슈대학에 한국연구센터가 개설되어, 2000년 1월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행스럽게도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0년 12월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하여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창립 후 10년간은 ‘한일 지역 연계의 형성 - 특히 부산·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을 목표로 하였으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학술 / 종합적 연구 및 우수한 차세대 한국 연구자의 배출, 그리고 후쿠오카 부산 포럼의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두 지역간의 다양한 분야의 연계가 실현되었고,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간의 목표를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로 하여, 현재 본 한국연구센터의 스태프들은 ‘해협은 있어도 국경은 없다’를 모토로 일치 단결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교육면에서는 2011년도에 개설된 ‘한일해협권 칼리지’가 ‘캠퍼스 공유’를 모토로 여름에는 규슈대학과 부산대학의 학생들이 양교 캠퍼스를 왕래하고, 겨울에는 연세대학을 방문한 규슈대학 학생들이 한국에서 ‘현지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 프로그램 최종년도를 맞이하였고, 3년간 한일을 왕래한 학생들은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성과가 바탕이 되어, 2014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문부과학성 특별경비에 의한 지속적인 운용이 허가되었고, 국제공동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지역을 한일해협권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인원도 250명에서 800명으로, 그리고 참가대학도 2대학에서 6대학으로 확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규슈대학에서 세계로 보내고자 합니다.

연구면에서는 2012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인 “한반도 글로벌 히스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의 한 국가의 국사적, 지역사적인 틀에서 벗어나, 인류 역사를 글로벌 관점에서 파악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사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국민국가론을 대체할 광역지역간의 “관계의 묶음”이나 세계 시스템·국제질서 등을 새롭게 분석하는 틀을 도입한 것입니다.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많은 젊은 연구자가 모여서 몇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연구 성과의 일부는 한국연구센터 시민강좌 2013 (공최: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 등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세대나 국적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각종 워크숍이나 세계한국연구 컨소시엄 워크숍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일본에서의 “한국연구의 세계적 거점 형성”에 공헌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연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동시에 규슈대학의 “躍進百大” 계획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학내 공동연구교육시설로서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저명한 13대학 소속 한국연구센터를 모두 망라한 세계한국연구컨소시엄의 제2대 회장으로로서, 저는 앞으로도 저의 소임을 다 하고 싶습니다.